

現代思想과 「릭켈트」

그에 있어서의 『산 것』과 『죽은 것』[下]

申南澈

『認識의 對象』이라고 하는 것은 릭켈트의 著作中에서 가장 重要한 冊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認識의 對象이라고 하였으니 누구나 다 아는 文字 그대로의 外的이고, 物的인것을 認識하는데 關한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 認識의 對象은 그런 것이 아니라 普遍의 眼目으로 볼 때에는 웬심인지 알 수 없을만치 이상한 것을 問題삼고 잇는 것이다. 卽 그의 『認識의 對象』이라고 하는 『對象』은 五官으로 知覺할 수 잇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所謂 『超越的인 當爲 或은 價値』가 그것인 것이다. 卽 認識의 論理的인 本質을 判斷에 求해 가지고 認識主觀이 判斷에 잇어서 肯定하거나 또는 否定하는 그러한 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認識의 對象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超越的인 對象을말한다. 우리가 흔히 認識이라고 하면 知覺과 外界의 事物과의 一致를 云爲하게 된다. 事實이것은 具體的인 認識의 基本的인 要件이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要件을 全然 度外視하는 것은 아니나 極히 低級한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認識에는 對象의 形式化와 抽象的 超越作用이 特히 強調되어 있다. 事實 그는 『認識의 根本問題는 超越性的인 問題라』고 까지 極言하고 잇느니 만치 認識이 成立하는곳은 이 超越的인 領域인 것이다. 그것이 卽 『價値』이고 『妥當』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그는 認識의 對象을 具體的인 存在의 世界로부터 抽象的 形式과 超越的인 論理的인 世界로 昇華시키고말었다. 그의 이른바 『論理的인것의 汎主宰』라는 것의 뜻을 인제 理解할 수가 잇을 것이다.

認識論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哲學或은 思想體系를 建設하는데에 잇어서 가장 重要한 根本問題다. 이것이 어떠한 나타나느냐하는데 따라서 그 哲學이나 思想에 依하여 理解되고 解釋되는 文化의 諸形態가 決定的인 影響을 입게 된다. 릭켈트의 이와 같은 超越的인 妥當의 認識論理에 依한 歷史와 文化의 解釋이 따라서 形式的이고, 抽象的인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生動한 現實의 諸當爲는 죽은 形式으로 化하고 充實한 文化의 內容은 抽象的 論理로 變質되고만다. 이것이 그의 思想에 있어서의 『죽은 것』이다. 이것이 벌써 形而上學이라는 것은 누구나 대번에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그의 이러한 先驗的인 形式主義가 時代의 動向과 같이 痛切한 批判의 對象이 된 것은 너무도 當然한 일이었다. 그의 思想에서 『산 것』이라고 認定한 것도 이 『죽은 것』에 比하면 實로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죽은 것』 때문에 그 『산 것』의 光彩가 흐려지고 또 아조무쳐지기까지 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릭켈트의 思想의 現代的인 意義는 어디 있는가. 이것이 最後로 우리가 묻고 싶은 問題라하겠다.

L. 발가가 『暗黑한 中世라는 슬로간』에 對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한 개의 歷史的인 時代로서의 中世를 非難과 敵意를 가지고 貶斥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거의 □□이 되어 있는 『暗黑한 中世』라는 것이 敎□과 封建領主에 依한 神□的인 秩序에 對한 憎惡와 氣昏을 喪失한 下層人民에 對한 同情의 壓縮된 表現이라고 할 것 같으면, 市民的인 社會에 對한 現代的인 프로테스트는 무엇으로써 表現할 수가 있을까? 市民社會에 對한 슬로간은 勿論 市民社會 그것이 □□된 뒤에 歷史的으로 作出되고 그리하여 또 歷史的으로 公認을 받을 것이겠지만 나로 하여금 우선 아권대로 『合理的인 狡知의 市民社會』라는 슬로간을 내거는 것을 容恕한다면 나는 이릭켈트의 『文化의 哲學』으로써, 한 개의 조흔 市民社會의 文化理論의 典型을 삼으라고 한다. 形式的인 整然한 體系를 가진 그의 文化理論은 實로 市民社會-世界大戰을 中心으로 하는 世界經濟時代의 普遍的이고 □透的인 資本家的 □□를 如實히 反影한 것이라고 보지 못할 것인가? 世界大戰까지의 市民社會는 實로 狡知에 當한 合理的인 메카니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大戰以後에는 非合理的인 要素가 만히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實로 合理的으로 構成된 普遍的인 것이다. 릭켈트의 哲學은 이러한 合理的인 메타니즘의 思想-理論的인 컨텐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卽 릭켈트는 合理的인 市民社會의 形式的인 代辯者이었다는 點에 그의 思想的인 意義가 있는 것이다. 實로 그는 偉大한 그리고 또 忠實한 代辯者이었다.

이것은 그의 社會的인 實踐上의 態度에 있어서 더욱 明白히 나타난다. 特히 現代의 理解에 있어서 그러하다. 릭켈트는 『막스·웨-버』라는 社會學者가 一九一九년에 한 講演 『職業으로서의 學問』에 全的으로 贊同한다. 大戰後既存의 秩序와 그 將來에 對한 疑問이 全世界를 휩쓸고 있을 때에 血氣旺盛한 靑年들이 現代社會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에 나아가는 것을 叱咤하여 『말은 일

로 도라가라』고 외친 웨-버의 意見에 그는 左袒하였다. 웨-버는 前記의 講演에서 그러한 否定的인 □□에 對하여 『□行』이니 『□□□』아니하고 靑年들을 訓戒하였든것이다. 립켈트가 이 意見을 支持한것은 그로서는 宜當한 일이 었다. 그는 市民的世界觀-따라서 칸트의 世界觀을 根本的으로 變改할 必要를 느끼지 안혔고, 따라서 웨-버와 같이 現代의 危機의 思想에도 苟 贊成하지 안혔다.

新칸트學派의 運動은 形而上學的인것의 否定에서 출발하였으나 다시 形而上學的인것으로 復歸하는 同時에 그의 思想史上的 幕을 닫았다. 一九二四年 칸트 誕生二百年祭는 正히 그 閉幕의 運命的인 祭典이었다. 그 뒤에도 립켈트는 自己의 思想을 爲하여 孤軍奮鬪하였으나 世間은 거의 도라다 보지 안혔다. 그러나 그는 現代의 最大思想家中の 一人이라고 하기에 조금도 遜色이 없는 巨人이었다. 이제 벌써 그는 잊지안타! 함참 當年같으면 世界를 들어 그 逝去를 哀惜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人民戰線과 팻쇼의 숨막히는 抗爭속에서 그의 本國에 잊어서 까지도 거의 그를 忘却하고있는 가운데 죽었다. 哀哉! 英靈이여! 永遠히 갓도다!! (八月二十日) (完)